

국립중앙대학교 CWNU PEOPLE



이재용 자작자동차 동아리 AK
(기계공학부 3학년)

2025 SPRING
CWNU Magazine
vol. 01

Editor's Let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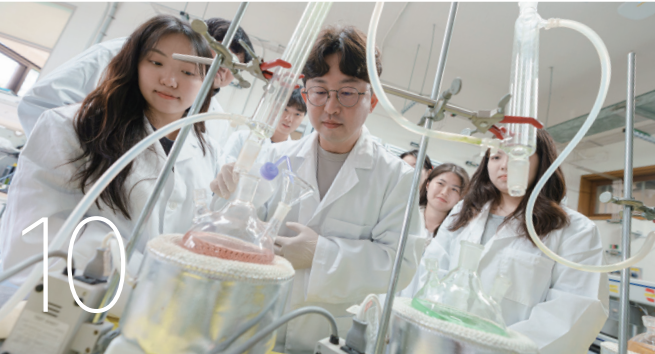
지역대학의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바꾸고 있습니다.
국립창원대학교의 혁신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Think Different

인구 소멸과 수도권 집중으로 지역대학이 소멸 위기에 놓여있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단순한 변화가 아닙니다. “Think Different.” 완전히 다른 ‘생각의 혁신’이 필요합니다. 머지않아 학령인구가 서울 4년제 대학 정원과 똑같아지는 현실에서 기존의 틀에 박힌 사고로는 지역대학이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인공지능(AI)으로 대학 교육의 패러다임이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 기존의 교육과정을 답습하는 방식으로는 지역대학의 미래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국립창원대학교의 혁신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글로벌 대학 30 사업, 지-램프(G-LAMP) 사업, 사천우주항공캠퍼스 개교, 그린벨트 해제 등 다른 대학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역대학의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바꾸고 있습니다.



Contents



발행인
국립창원대학교 총장 박민원

편집장
국립창원대학교 대학홍보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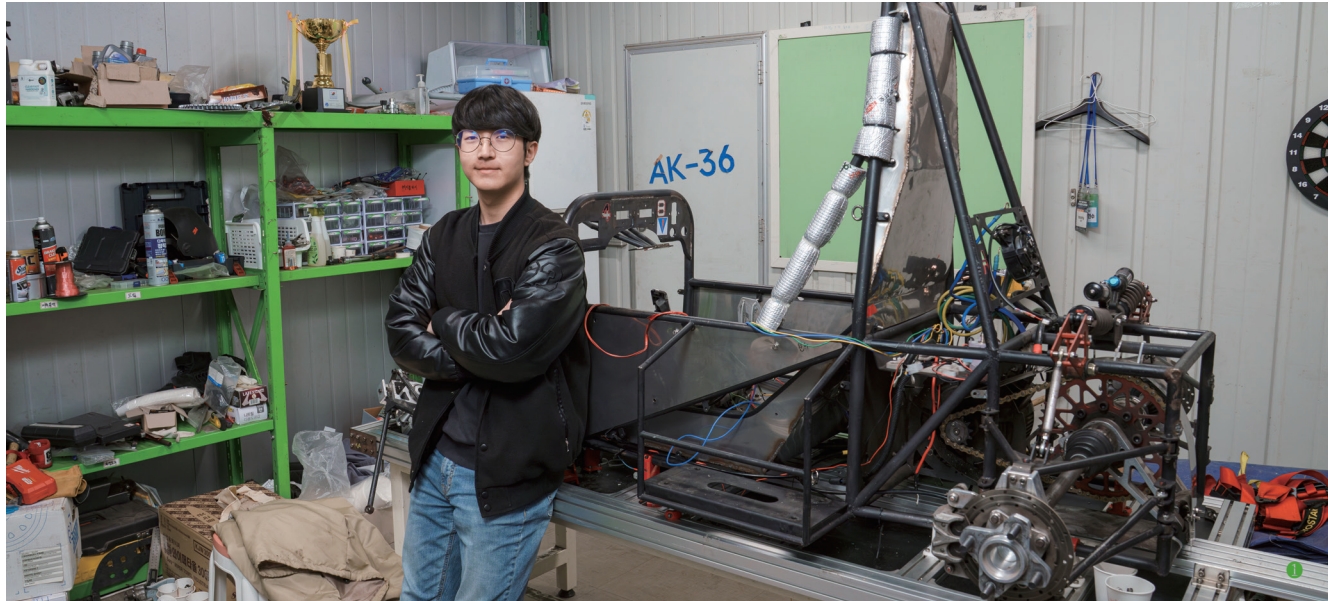
발행처
국립창원대학교
(51140)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로 20
Tel. 055-213-2603

Chapter 01. 기획취재	미래로 달린다 이재용 자작자동차 동아리 AK (기계공학부 3학년)	06
Chapter 02. 사람&인터뷰	국립창원대를 빛낸 인물 정대운 스마트그린공학부 교수	10
	숨은 히어로 김주용 박물관 학예실장	14
	자랑스러운 국립창원대인 김재흥 국립창원대 총동창회 회장	18
	국립창원대 DNA 박민원 국립창원대학교 총장	22
쉬어가는 코너	포토에세이, 지금CWNU	28
Chapter 03. 이슈&스토리	톡톡톡 26년 기다린 용동공원, 이제는 시작할 시간!	30
	지역 속 국립창원대 국립창원대와 함께 걸어온 <푸죽옥> 이석희·강혜정 부부의 이야기	32
	국립창원대 한바퀴 · 새롭게 단장한 정문 · 탁청대공원 개장	36
	감성 사진관 추억 속 그때 그 시절	40
	칼럼 조영태 국립창원대학교 교학부총장	44
Chapter 04. 소식&뉴스	숫자로 보는 CWNU	46
	CWNU 뉴스	48

한 대의 자동차가 굴러가기까지. 그 안에는 설계 도면과 금속 부품, 배선과 배터리만 있는 것이 아니다. 밤을 새우고, 실패를 반복하고, 다시 일어서는 사람들이 있다. 국립창원대학교 자작자동차 동아리 AK는 2003년부터 매년 자작자동차를 제작해 전국 대회에 출전해 온 전통 있는 동아리다. '타는 차'가 아니라 '만드는 차'에 몰두하는 이들의 시간은 치열하고 뜨겁다. 올해 AK 팀장을 맡은 기계공학부 3학년 이재용 학생을 만나 그 여정을 들어보았다. write. 김달남 photo. 백동민

국립창원대학교 자작자동차 동아리 AK
이재용 팀장 기계공학부 3학년

우승을 향한 엔진을 켜다



내가 만든 차가
굴러가는 순간

AK는 기계공학부와 전자공학과 학생들이 함께 차량을 설계하고 제작해 대회에 출전하는 동아리다. 20여 년 동안 오프로드 부문인 baja에서 거둔 좋은 성적을 기반으로 최근에는 전기자동차(EV) 부문에 도전하며 새로운 영역으로 확장 중이다. 이재용 팀장은 2024년 AK에 가입했다. 처음에는 ‘동아리 활동이 취업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하는 막연한 생각과 선배들과 교류를 해보고 싶다는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막상 활동을 해보니 자신이 기대했던 것보다 많은 걸 배울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학교에 다니면서 실제로 뭔가를 만들어볼 기회는 많지 않잖아요. 그런데 AK에서는 정말 '굴러가는 차'를 직접 만들 수 있어요. 그게 이 활동의 가장 큰 매력이에요.”

자동차 제작 과정은 길고 고되다. 설계와 용접, 전자 부품 조립, 소프트웨어 통합까지-모든 과정을 학생들이 직접 수행한다. 매년 대회가 열리는 10월을 목표로 약 1년간 자동차 제작에 몰두하는 셈이다. 그중 이재용 팀장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언제였을까? 이 팀장은 단번에 작년 대회 출전을 앞두고 완성한 차량이 ‘처음 굴러가던 순간’을 떠올렸다.

1. AK 팀원들이 차량 제작을 하는 작업 공간에서

“그동안 공중에 띄워놓고 작업하던 차량이 드디어 바닥에서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정말 뿌듯하고 몽클했죠. '드디어 다 만들었구나' 싶은 감정이 밀려왔어요.”

전국 2위,
그 뒤에 숨은 기술과 팀워크

AK는 2024년 전국 대학생 포물러 자작자동차 대회(KFGP STUDENT)에서 EV 부문 2위를 차지했다. 지난 대회에서 결승전까지 진출했으나 종합성적에서 아쉽게 수상을 하지 못했던 터라 그 기쁨은 더욱 컸다. 하지만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대회 첫날, 차량의 배터리 관리 시스템(BMS)에서 문제가 발생해 참가 자체가 무산될 뻔한 위기도 있었다.

“당시 배터리를 점검하던 중 BMS 단선 문제가 발견됐어요. 예비 부품이 없어 대회를 포기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전년도 차량에 쓰인 BMS가 같은 모델이라는 걸 떠올려, 급히 지인을 통해 창원에서 전남 영암까지 배터리를 이송했어요. 그걸 새벽까지 수리해서 다음 날 아침에 차량을 정상 작동시킬 수 있었죠.”



AK 공식 인스타그램

극한의 상황에서도 빠르게 문제를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었던 데에는 AK 팀의 강점이 있다. 이재용 팀장은 ‘단합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자랑으로 꼽았다.

“당시 팀장님과 설계팀장님의 리더십 아래 팀원들이 각자의 역할을 명확히 이해하고 움직였기 때문에 위기 상황에서도 빠르게 해결책을 찾을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AK가 지난해 성과를 낼 수 있었던 배경에는 치밀한 기술적 고민이 있었다. 최고 속도를 높이기 위해 차량 설계를 조정하고, 경량화를 위해 타이어를 기존 13인치에서 10인치로 바꾸었다. 더 가볍고 민첩한 주행을 위한 전략이었다. 기술 교류도 중요한 성장의 발판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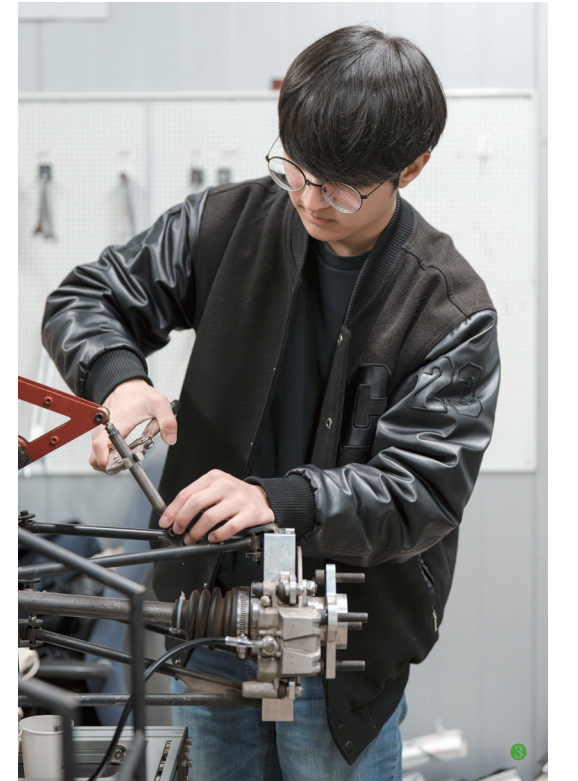
“작년 초에는 다른 학교의 팀을 직접 방문해 설계 과정을 물어보기도 했어요. 물론 핵심 기술은 각 팀의 노하우라 다 공유되지는 않지만, 현장을 직접 보며 어떤 방식으로 차량을 구성하는지 배웠고, 그것을 저희 차량에 적용해 본 게 도움이 됐어요.”

그렇게 얻은 인사이트는 AK만의 방식으로 재구성되었고, 결과적으로 차량 성능을 끌어올리는 데 기여했다. 또한, 김석호 지도교수의 도움과 울산경남지역혁신플랫폼사업단을 통해 차량 제작비를 지원받을 수 있었던 점도 큰 힘이 되었다. 기술적 고민뿐 아니라 안정적인 운영 기반이 함께 뒷받침되었기에 가능한 성과였다.



2. 이재용 팀장이 폴로드 체결을 점검하고 있다.

3. 올해 대회 우승을 목표로 기술적 고민을 계속해나가고 있다.



다음 목표를 향해,
다시 출발선에 선다

AK는 작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2025년 ‘전국 대학생 포물러 자작자동차 대회’와 ‘전국 대학생 대상 자작전기차 경진대회’에 출전할 계획이다. 올해 AK의 전략은 ‘더 가볍게’다. 배터리 성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선 결국 전체 차량의 무게를 줄이는 것이 핵심이다. 최대한 무게를 덜어내면서도 주행 안정성과 출력을 유지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올해 AK의 목표는 우승입니다. 작년보다 더 나은 성과를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20년 넘게 매년 새 차를 만들고, 새 도전을 이어온 AK. 이들의 도전은 멈추지 않는다. 긴 시간 터득해 온 기술력, 위기를 돌파한 단합력 그리고 다음 성과를 향한 단단한 각오. AK는 지금 다시 출발선에 서 있다.



버려진 것들의 반격 페플라스틱을 에너지로 만들다

국립창원대학교 스마트그린공학부 정대운 교수

생각해 보라. 우리는 매일같이 플라스틱을 쓰고, 버리고, 금방 잊어버린다. 하지만 플라스틱은 우리를 잊지 않는다. 땅으로, 바다로, 때로는 우리의 밥상 위까지 잊지 않고 되돌아온다. 그래서 묻는다. 이 골칫덩이 플라스틱, 해결하는 방법이 없을까? 여기, 페플라스틱을 에너지 자원으로 바꾸겠다고 선언한 사람이 있다. 국립창원대학교 스마트그린공학부 정대운 교수다. 그의 연구실에선 오늘도 플라스틱의 인생 2회차를 준비 중이다.

write. 김봉임 photo. 백동민

페플라스틱 함부로 차지 마라
너는 한 번이라도
뜨거운 에너지였느냐

인류가 존재하는 한 사라지지 않는 플라스틱. 인류가 존재하는 한 폐기물은 끊임없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답은 하나다. 폐기물을 쓸모 있게 만들면 된다. 국립창원대 52호관 317호. 여기서 매일같이 플라스틱의 '변신'이 일어난다. 정대운 교수 연구팀은 '버려진 플라스틱에도 가능성이 있다'는 믿음으로 해답을 찾아간다. 정교한 실험과 집요한 탐구 끝에, 무가치하던 플라스틱이 새로운 가치로 다시 태어난다.

“페플라스틱에는 반전의 매력이 있어요. 겉으로 보기엔 골치 아픈 쓰레기지만 안을 들여다보면 에너지와 자원이 숨어 있죠.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환경 오염원이 될 수도 있고, 신산업의 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페플라스틱을 무한한 에너지로 만들고 싶다는 바람에서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환경공학을 전공하며 기후와 에너지 문제에 대해 관심은 자연스럽게 생겼다. 대학원 시절, 폐기물 에너지화와 관련된 연구하던 정대운 교수가 페플라스틱에 본격적으로 관심을 두게 된 건 코로나 팬데믹 시기다. 하루가 멀다 하고 늘어나는 배달 쓰레기를 보며 환경 오염에 대한 위기를 느꼈다. 그리고 위기는 곧 기회를 확신했다.

“코로나 시기에 플라스틱 사용량이 폭증하는 걸 보면서 환경 오염에 대한 심각성을 느꼈는데요. 위기가 곧 기회라는 말이 있듯이 페플라스틱 처리 문제를 기술적으로 해결하면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의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우리는 촉매 레시피를 만드는 흑백요리사

최근 정대운 교수가 연구한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생산 기술은 폐플라스틱을 단순히 태우는 게 아니다. 정교하게 조리하여 연료로 전환하는 과정이다. 이때 사용하는 촉매는 요리의 양념과도 같아서 어떤 촉매를 사용하고 어떻게 온도를 조절하느냐에 따라 연료의 품질이 크게 달라진다. 그래서일까. 정대운 교수는 자신의 연구팀을 흑백요리사로 비유한다.

“저희 연구실은 마치 넷플릭스 '흑백요리사' 경연장 같습니다. 누가 더 좋은 촉매 레시피를 만들까 고민하고 실험하는 모습이 요리사 같으니까요. 하하하.”

바야흐로 친환경 시대. 환경을 지키는 기술이 산업을 이끄는 무기가 되는 지금, 정대운 교수에게도 바람이 있다. 연구실 안에서 머무는 기술이 아닌 진짜 산업 현장에서 쓰이는 기술을 만들고 싶다. 자신이 만든 기술로 산업 현장을 바꾸고, 사회를 혁신하고 싶다. 무엇보다 지구와 인류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

“지금까지 개발해 온 촉매 기술을 산업 현장에 적용하고 상용화하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아마도 대부분 과학자들이 꿈꾸는 바람 아닐까요?”



폐플라스틱이 지역 경쟁력이다.

폐기물을 에너지원으로 만드는 자! 세상을 앞서갈지이다. 과한 표현이 아니다. 폐기물을 처리할 땅은 점점 사라지고, 처리 비용은 점점 높아지는 현실에서 어떻게 폐기물을 처리하는가에 따라 국가와 지역 경제가 달라진다. 특히, 제조업 중심의 경남에서는 자체 폐기물을 에너지로 활용해 연료 자립도를 높일 수 있다. 기업에선 폐플라스틱 처리 비용을 줄이면서 이를 고부가가치 연료로 전환해 새로운 수익 모델을 만들 수 있다. 무엇보다 폐플라스틱 처리 한계를 기술로 돌파하면 국가적, 지역적 현안인 폐기물 문제를 해결하고 신산업 창출이 가능하다. 한마디로 버릴수록 가치가 커지는 구조다.

“기존 수소 산업이 천연가스 기반이라면 저희는 폐자원을 활용한 저탄소 수소 생산이라는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이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지속 가능성과 지역 순환경제에 해답이 될 수 있습니다.”

정대운 교수가 바라는 미래는 쓰레기가 사라지는 세상이다. 버려진 쓰레기가 다시 자원으로 순환되고, 산업과 환경이 공존하는 세상을 만드는 꿈. 지역의 청년들과 함께 폐플라스틱을 활용해 친환경 에너지를 생산하고 지역의 미래 산업을 준비하는 이유도 결국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다.

“지역 청년들과 함께 폐플라스틱을 활용해 친환경 에너지를 생산하고, 지역의 미래 산업을 준비하는 이유도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서인데요. 그 속에서 지역 변화의 속도를 높이는 촉매 같은 연구자가 되고 싶습니다.”

만약에 말아야...

Q. 연구비 100억 지원 VS 로또 10억

하나를 선택한다면?

연구비 100억! 로또 10억은 차 한 대, 집 한 채지만 연구비 100억은 사람을 키우고 기술을 만들고 세상을 바꿀 수 있으니까.

Q. 지금 폐플라스틱이 말을 할 수 있다면?

나 아직 끝난 거 아니야! 한 번 더 기회를 줘!

Q. 하루 종일 촉매 실험 vs 하루 종일 논문 심사

하루 종일 촉매실험이 더 나을 것 같아요. 논문은 정적이지만 실험은 눈앞에서 변화와 결과가 펼쳐지는 드라마틱한 현장이라서 흥미롭습니다.

Q. 한 달의 긴 휴가가 주어진다면?

아내와 우리 집 강아지 '군밤'이랑 조용한 곳에서 한 달 살기를 하고 싶어요. 비워야 채워지니까요.

profile

이름 정대운

연구과제 수주액(2016년 3월~현재)

143억 원(개인/책임, LINC3.0 등 제외)

특허

10건, 기술이전 15건(기술료: 약 15억 원)

논문

90건(대표논문 5건 평균 IF: 16.5, H-index: 36)

수상 실적

교육부장관 표창(산학 유공),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수소산업 활성화 유공) 외 다수



역사의 조각으로 새로운 이야기를 만드는 사람



김주용 학예사에게 국립창원대학교는 특별하다.

모교이자 첫 직장이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을 ‘운 좋은 사람’이라 겸손하게 표현했다.

모교의 역사를 연구하고 학교가 속한 지역의 역사를 조사하고 연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역 역사와 박물관에 대한 그의 노력과 사랑은

운으로 설명되지 않을 때가 훨씬 많다.

안녕하세요. 국립창원대학교 사학과 96학번 김주용입니다

“대학 시절 내내 교수님을 따라 발굴 현장에서 곡괭이 들고 열심히 땅 파죠. 힘들지만 즐거웠습니다. 대학 1학년 때 조사하고 복원했던 유물이 국립김해박물관에 전시됐다는 뉴스를 보면서 놀랍고 설렘이었어요. 본격적으로 고고학에 관심을 두는 계기가 됐죠.” 어느새 국립창원대 박물관에서 근무한 지 20년 차에 접어드는 김주용 학예사. 그는 2020년에 대학박물관협회에서 수여하는 ‘올해의 대학박물관인상’을 수상했다. 대학박물관 발전에 기여한 인물에게 주는 상으로, 김주용 학예실장은 경남 지역 문화유산 보존 및 관리, 학술 조사를 통한 고대 문화 가치 발굴에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은 것이다. **write.** 김수미 **photo.** 백동민

국립창원대학교 박물관 김주용 학예실장





‘창원 최초’라는 타이틀의 토대

꾸준한 관심과 끈질긴 발품

4년 전. 창원 도계동과 동읍 용잠리 유적에서 구석기 유물의 발견으로 지역이 들썩들썩했다. 보통 고고학에선 사람의 흔적이 확인되는 시기부터 지역 역사를 추정한다. 창원은 동읍 합산패총, 안골 패총 등에서 확인된 신석기 시대 유적을 통해 신석기 시대 중기부터 사람이 살았다고 여겨졌다. 김주용 학예사는 창원에도 구석기 유물이 있을 거로 생각했다. 국립목포대 박물관과 남도학술교류를 통해 탐색을 시작했다.

“구석기 유물이 있을 법한 장소를 박물관 직원들과 끈질기게 찾아갔어요. 붉은색 토양에 깨진 돌맹이가 여러 개 솟아있는 장소를 발견한 거죠. 학예사는 축이 발달한 사람이거든요. 이거다 싶더군요.”

마침내 여러 면석기, 찌개 등의 뼚석기를 찾아낸 것이다. 이는 창원의 역사를 10만 년이나 앞당긴 위대한 발견이었다. 그뿐만 아니라 창원 최초의 신석기 유물, 공룡 발자국도 찾아 세상에 알렸다. 지역민들에게는 창원의 놀라운 이야기가 추가된 셈이다. 여름 피서지로 사랑받는 용추계곡이 공룡의 터전이었으며, 구석기 시대부터 창원에 사람이 살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됐다.

연구 - 조사 - 교육의 뜨거운 선순환

김주용 학예사는 지역의 유물과 유적을 새롭게 발견하고 연구하고 그 결과물로 전시 기획을 하며 교육에도 활용했다. 우리나라 일본군 ‘위안부’ 관부재판을 연구한 국제관계학과 문경희 교수와 사학과 신동규 교수의 일본군 ‘위안부’ 연구 성과를 전시한 〈관부재판과 끝나지 않은 Herstory〉도 좋은 호응을 얻었다. 서울 중심이었던 일본군 ‘위안부’ 연구 성과 전시를 지역에 초점을 맞춰 진행한 것이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당당한 여정을 밝고 긍정적인 시각으로 조명했다. 또한 미국 하와이 초기 한인 이민자들의 묘비를 조사해, 알려지지 않았던 독립운동가들을 발굴하는 데 주력했다. 한국 이민사와 독립운동사 연구에 중요한 사료로 평가받으며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박물관에서 진행한 연구와 국립창원대학교 여러 교수님의 연구 성과를 연결고리 삼아 전시를 기획하죠. 한마디로 지역 대학교만이 할 수 있는 전시. 바로 우리 지역의 이야기니까 시민들의 주목도도 높은 편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역사를 단단하게 기록하는 사람

김주용 학예사는 올 6월, 하와이 현지 조사를 앞두고 있다. 벌써 다섯 번째 방문이다. 하와이에 방치된 한인 비석을 기록해 달라는 하와이대 교수의 요청으로 시작한 탁본 작업은 역사에서 잊힌 독립유공자를 대거 발견하고 재조명하는 계기였다. 지금까지 하와이 여러 섬에서 하와이 한인 이민 1세대들의 묘비 1,100여 기와 한인 묘지 25곳을 확인했다. 묘비에 적힌 이름과 당시 하와이 입항선박부, 안중근 의사 성금 기록, 일본 외무성 자료, 하와이 교포 신문, ‘국민보’ 등의 자료를 대조하면서 이분들이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무명 독립운동가라는 것을 최초로 확인하게 되었다. 또한 국가보훈부 독립유공자 공적조서와 대조하면서, ‘묘소 미확인’ 상태이던 독립유공자들의 묘소도 찾을 수 있었다. 이 연구는 국립창원대 박물관 1층 특별 전시 〈잊혀진 이야기 역사가 되다-하와이 이민 1세의 묘비로 본 삶의 궤적〉의 토대가 됐다.

“삶의 마지막 기록인 비석에서 독립 운동가의 흔적을 발견했죠. 요즘도 한인 이민자들의 후손들에게서 조상의 묘소를 찾고자 하는 문의가 꾸준히 와요. 시멘트와 화산석으로 만들어져 부식이 빠른 묘비들이 지금껏 방치되어 온 현실이 안타까워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분들인데 잊히고 있으니깐요. 묘비 보존과 함께 이분들의 생애와 공적을 되살려 기억해야 합니다.”

김주용 학예사의 꿈은 현재 하와이에 남아있는 한인들의 묘비를 모두 찾아내 기록하는 것이다.

맑고 깨끗한 마음으로 학문에 정진하라는 우리 조상의 뜻처럼

올해 국립창원대학교 박물관 앞에 탁청대공원이 새롭게 조성됐다. 탁청대 비석은 조선시대 창원향교에 세워져 있던 유교 비석이다. 소답동으로 향교가 이전한 뒤 비석이 오랫동안 방치되다가 국립창원대학교에 세워지게 됐다. 탁청비에 새겨진 ‘맑고 깨끗한 마음으로 학문에 정진하

라’는 유학 정신을 이어가야 한다는 국립창원대학교 박민원 총장의 뜻과 더불어 탁청대공원이 조성됐다. 공원에서는 방치되어 있던 석조보살상, 창원 상천리 석조여래좌상 등의 가치 있는 유물도 볼 수 있다.

“지역 대학의 인프라를 가지고 지역 역사와 문화적인 혜택을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것이 국립창원대학교 박물관의 소명입니다. 시민들이 지역 문화유산을 통해 여러 이야기를 만들어 갈 수 있다는 점이 의미 있죠. ‘무학산에 가면 공룡 발자국이 있다! 무학산이 공룡이 뛰어놀던 호숫가였다.’ 이런 지역의 이야기를 만들어 가는 것. 새로운 지역 역사를 쓰는 것이 대학 박물관의 역할이죠.”

화창한 하늘과 어우러진 탁청대공원을 거닐며 김주용 학예사는 웃었다. 앞으로 그가 만들어갈 이야기가 기대되는 순간이었다.



1. 국립창원대박물관 전시를 설명하는 김주용 학예실장
2. '2023 올해의 대학박물관'을 비롯해 수많은 상이 전시된 선반
3. 조선시대 창원향교 앞에 세워졌던 탁청대 비석

국립창원대학교 발전, 총동창회가 앞장선다.

김재홍 국립창원대 총동창회 회장



식당에서 만난 아르바이트생이 국립창원대생이라면 슬쩍 용돈을 건넨다.

술자리에서 건배사는 무조건 ‘국립창원대를 위하여’를 외친다.

타 대학을 지망하던 딸을 기어이 국립창원대학교에 입학시켰다.

결혼 전 데이트도 국립창원대에서, 결혼 후 가족 산책도 국립창원대에서 한다.

기쁠 때도 울적해도 오직 국립창원대. 인생에서 국립창원대를 빼놓고는 말할 수 없다.

이 정도면 이 남자, 거의 국립창원대학교가 종교다.

국립창원대학교 팬심 하나로 덜컥 총동창회장을 맡은 김재홍 회장 이야기다.

write. 김봉임 photo. 백동민

“2023년에 총동창회장을 맡았고

올해 연임이 되었는데요.

솔직히 총동창회장 하려면

돈도 좀 있어야 하는데...

그런 건 잘 모르겠고요.

국립창원대를 사랑하는 마음 하나는

누구보다 자신 있습니다.”

김재홍 회장은 보통 떠올리는 여느 총동창회장과는 이미지가 조금 다르다. 일 년에 몇 번씩 주요 행사 때 얼굴을 보이는 총동창회장이 아니다. 거의 출퇴근 도장을 찍듯 학교에 들른다. 학교 발전을 위해서라면 이곳저곳 물불 가리지 않는 스타일. 그야말로 어디선가 무슨 일이 생기면 틀림없이 나타나는 김 반장이다.

“요즘 학교가 많이 변했어요.

역사상 처음으로 국립창원대학교 출신 총장님이

학교를 이끌고 있는데, 일을 참 잘하세요.

총동창회가 조금이라도 학교 발전에 도움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재홍 회장은 국립창원대학교 무역학과 84학번이

다. 40여 년 전, 김재홍 회장이 입학할 당시 국립창원대는 허허벌판이었다. 교내 건물도 학교 밑 상가 건물도 거의 없었다. 놀 데도 갈 데도 많이 없던 그때 그 시절. 순수했기에 재미가 있었다. 재미가 있었기에 지금도 학창 시절만 생각하면 빙그레 웃음이 나온다. 그 시절 친구들과 나눈 대화 한 마디, 함께 걸었던 운동장 길 하나도 소중한 추억으로 남아 있다. 학교가 변한 만큼 세월도 흘렀지만, 그에게 국립창원대는 여전히 ‘마음의 고향’이다. 그래서일까. 그는 누구보다 국립창원대의 내일을 걱정하고, 또 꿈꾼다.



국립창원대 총동창회 제23대 김재홍 총동창회장 취임 및 2025년 정기총회 행사 사진

“군 복무를 마치고 복학을 한 뒤
우연히 타이퐁이라는
야구 동아리에 가입을 했어요.
야구 실력이요? 응원은 잘했습니다.”

대학 시절 김재흥 회장은 백곰으로 불렸다. 피부가
하얗서 친구들이 붙여준 별명이다. 한번 백곰은 영
원한 백곰! 40여 년의 세월이 흘러 하얀 피부가 누
렇게 변한 지금까지도 김재흥은 백곰으로 통한다.

“화이트 베어라고 하죠.
지금도 친구들을 만나면
이름보다 백곰이라고 불러요.”

지금은 영농법인 대표이사지만 김재흥 회장은 대학
졸업 이후 경남은행에 입사했다. 입사한지 30년 만
인 2019년에 정년퇴직했다. 한평생 은행원으로 살
아온 그가 2023년 처음 총동창회장을 맡는다고 했
을 때 아내는 반대했다. 돈 쓰고, 시간 쓰고, 마음까
지 다해야 하는 자리를 왜 굳이 하느냐며 만류했다.

“

초중고 동창회장과 달리
대학교 총동창회장은 별로 인기가 없어요.
특히 제가 하는 사업이 총동창회장을 한다고
이익을 보는 분야가 아니거든요.
도리어 돈이나 시간이 들어가는 일이 더 많죠.
그러니까 아내는 이해를 못 하는 거죠. 하하하.

”

요즘 국립창원대학교의 모습을 보며 김재흥 회장은
상전벽해라는 말이 떠오른다.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정문 차량 통제, 야외 공연장과 문화공간으로 조성
한 탁청대공원, 사립폭포와 송림. 하루하루 발전하
는 국립창원대학교 모습에 감탄사가 절로 나온다.
오랫동안 국립창원대학교의 변화 과정을 지켜봐 왔
지만 요즘처럼 놀란 적이 없다.

“최근에 우리 학교가 국책사업
그랜드슬램을 달성했잖아요.
글로벌 대학 선정뿐만 아니라
사천우주항공캠퍼스 설립도 기대가 많이 됩니다.
박민원 총장님의 트레이드마크가 추진력인데
불과 취임 1년 만에 많은 성과를 내는 것 같아요.”



총동창회 송년의 밤 송년회 및 장학금 전달식



profile

이름 김재흥
학과 무역학과 84학번
학창시절 별명 백곰
현재 직업 풍진농산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
주량 소주 1병
좌우명(평소 자주 하는 말)
한발 앞선 생각과 행동으로

김재흥 회장이 가장 이루고 싶은 바램은 총동창회
관 건립이다. 동문들이 함께 모여 소통하고 서로에
게 힘이 되는 공간을 만들고 싶다. 9만여 동문들이
찾아오는 총동창회! 그들에게 힘이 되는 총동창회장
이 되고 싶다. 이런 바람이 실현될 수 있도록 열심히
발로 뛰고 있다.

“총동창회관을 만드는 게 소원이예요.
2024년 회장단 회의에서
동문회관 설립 추진위원회를 만들고
동문들의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지역의 위기는 곧 지역 대학의 위기다. 국립창원대
학교도 예외가 아니다. 하지만 김재흥 회장은 자신
한다. 총장부터 교수, 교직원, 총동창회장까지 모든
구성원들이 힘을 합친다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고 믿는다. 지역 사회와 함께 국립창원대학교가 성
장할 때 지속 가능한 미래를 열수 있다. 그 앞자리에
총동창회가 설 각오가 되어 있다.

“지역사회와 함께 숨쉬는
상생의 모델을 만들어가기 위해
총동창회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립창원대학교 변신은 무죄!

승부사 박민원

국립창원대학교 총장실에 들어선 순간 느낌이 온다. ‘아, 박민원 총장은 일벌레구나.’ 웬지 난초 화분과 찻잔이 놓여있을 것 같은 총장실에 국립창원대학교 전략사업 마인드맵이 줄줄이 세워져 있다. 박민원 총장은 글이나 말로 생각을 정리하지 않는다. 실행 동기부터 목표까지 직접 그림을 그려가며 촘촘하게 전략을 짠다. 마치 영화감독처럼 국립창원대학교라는 무대의 시나리오를 직접 쓰고 연출한다. 총장실에 놓인 수많은 마인드맵은 그가 직접 그리는 국립창원대학교 미래 청사진이자 생존을 위한 작전도다. write. 김봉임 photo. 백동민





#박민원 총장이 직접 그리는
#국립창원대학교 미래 청사진



#국립창원대학교의
#전략사업 마인드맵

#SCENE 1

“문제를 해결하는 게 내 일이다.”

-영화 <마션> 중에서

영화 ‘마션’에서 혼자 화성에 남겨진 마크 와트니는 화성에서 살아남을 방법을 찾으며 말한다. “나는 과학자다. 문제를 해결하는 게 내 일이다.” 자신이 처한 암울한 상황에 절망하지 않고 다양한 과학적 원리를 적용하며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다. 오늘 국립창원대학교를 이끄는 박민원 총장도 말한다.

“위기에 빠진 국립창원대학교를 구하는 게 제 일입니다.”

저출생과 고령화로 지역 소멸 위기에 처한 2025년 대한민국. 그 위기의 중심엔 지역과 지역대학이 있다. 수도권 대학 쏠림

현상으로 이미 지역대학은 생존에 위협을 받고 있다. 2035년 이면 학령인구가 서울 4년제 대학 정원과 같아지고, 2040년 이 되면 수도권 대학조차 충원율이 60~70%대에 그칠 거라는 암울한 통계가 들려오는 현실이다. 지역대학의 생존을 위협하는 건 대학 정원만이 아니다. 인공지능(AI) 시대는 새로운 대학 교육을 요구하고 있다. 학생들은 인공지능을 통해 지식을 습득하는 속도가 빨라지는데 대학 교육은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다. 어떻게 위기를 기회로 만들 것인가? 지역대학 생존 전쟁에서 그 누구보다 빨리 답을 찾아가는 사람. 바로 국립창원대학교 박민원 총장이다.

“지금 이대로라면 지역대학이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이 골든타임입니다. 학생들이 국립창원대학교를 선택할 수 있도록 교육의 질을 높이고 대학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야 합니다. 변화와 혁신만이 답입니다.”

#SCENE 2

“실전에선 기세가 8할이야”

-영화 <승부> 중에서

영화 ‘승부’의 주인공 조훈현은 말한다. “실전에선 기세가 8할이야!” 조훈현의 바둑 스타일과 박민원 총장의 일 스타일은 닮았다. 강한 승부욕과 리더십으로 상대를 기세로 압도한다. 열정적이고 감정 표현이 뚜렷한 성격이다. 이런 강점을 발휘한 덕분일까? 최근, 국립창원대학교가 전국 국립대학 중에서 유일하게 국책사업 그랜드슬램을 달성했다. 글로벌 대학 30 사업, 글로벌 기초연구 거점 육성사업 '지-램프(G-LAMP)', 국립대학육성사업 S등급, 경남 최대 규모 스포츠·문화예술 콤플렉스 '아레나플렉스 창원' 설립 등 한 가지도 선정되기 쉽지 않은 국책사업에 줄줄이 성공했다.

“말이 아니라 실력으로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총장이 앞장서서 열심히 일하면 꿈이 이뤄진다는 절박한 각오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박민원 총장은 교수 시절부터 추진력이 좋기로 소문났다. 한번 하기로 결심하면 웬만해선 물러서지 않는다. 이런 기질 덕분에 올해 3월 사천우주항공캠퍼스를 개교할 수 있었다. 최소 3년에서 5년 걸리는 사업을 8개월 만에 해낸 것이다. 국립창원대학교 경사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지역사회의 오랜 숙원 사업인 캠퍼스 내 개발 제한 구역(그린벨트)이 해제되었다. 대학 내 그린벨트 해제 부지를 중심으로 조성되는 ‘창원 도심융합기술(R&D)단지’가 지역 도시융합형 R&D 거점으로 본격 추진될 예정이다.

“그린벨트 해제는 엄청난 시너지를 불러올 것입니다. R&D센터

가 설립되면 국립창원대 연구역량이 높아지고, 학생들의 취업 기회가 커지면서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대학 혁신 모델이 될 것입니다.”

#SCENE 3

“작은 변화가 세상을 바꾼다.”

-영화 <빅 히어로> 중에서

국립창원대학교 변신은 무죄! 날이 갈수록 교정이 예뻐지고 있다. 국립창원대학교에 안 가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 가본 사람은 없다는 말이 나돌 정도다. 국립창원대학교를 전국에서 가장 예쁜 대학으로 만들겠다고 선언한 박민원 총장. 오늘도 오

랫동안 방치되었던 학교 곳곳의 묵은 장소를 찾아내어 새롭게 단장 중이다. 그 대표적인 공간이 요즘 뜨고 있는 탁청대공원이다. 그동안 수풀이 우거져 아무도 들어가지 않던 대학본부와 박물관 사이의 공간을 깨끗하게 정비했다. 탁청(濯淸). 맑고 깨끗한 마음으로 학문에 정진하라는 뜻에 맞게 학술과 문화, 휴식의 공간이 어우러진 지역 명소로 주목받고 있다. 이제 학생들의 피크닉 명소이자, 지역민의 산책 코스로 입소문을 타고 있다. 학교 구성원들 사이에선 “요즘 학교 오는 게 즐겁다”는 말이 자연스레 흘러나온다. 국립창원대학교 변신은 거침이 없다.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정문 차량 통행을 전면 통제하고, 지난 26년 동안 엄두를 못 냈던 교내 불법 경작지를 철거했다. 불법 경작을 금지한 땅에 꽃씨를 뿌리고 주변에 송림 산책로를 만들어 학생과 지역민들의 쉼터로 돌려주었다. 2024년 2월에 취임한 박민원 총장. 일한 시간은 1년에 불과하지만 이뤄놓

은 성과만 보면 마치 10년은 된 것 같다. 어디서 이런 추진력이 나오는 걸까? 궁금해서 물었다.

“하면 됩니다.”

단순하면서도 명쾌한 대답이다. 박민원 총장의 ‘하면 된다’는 추진력은 국립창원대학교의 희망을 만들었다. 2025년 올해 신입생 총원율이 5년 내 최고를 기록했다. 신입생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경쟁력이 궁금하다.

“대학 교정을 새롭게 단장하면서 입소문이 좀 난 것 같아요. 같은 값이면 예쁜 대학을 다니고 싶은 마음이 국립창원대학교 지원율을 높이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 저는 전국 국립대 중에서 국립창원대학교 교정이 제일 예쁘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박민원 총장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활기가 돌고, 정체되어 있던 공간들이 생명력을 되찾고 있다. 예쁜 교정뿐만 아니라, 학문과 사람,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대학의 모습이 진짜 경쟁력이다. 국립창원대학교의 ‘변신’은 지금도 진행 중이며, 그 중심엔 늘 ‘하면 된다’는 믿음이 있다.

#SCENE 4

“두려움을 용기로 바꾼다.”

-영화 <명량> 중에서

영화 ‘명량’에서 이순신 장군은 왜군의 압도적인 병력 앞에서 두려움에 떠는 조선 병사들에게 이길 수 있다는 용기를 준다.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있다는 말속에 담긴 승리의 확신과 진정성이 병사들의 두려움을 용기로 바꾼다. 박민원 총장도 이순신 장군의 리더십을 닮고 싶다. 학내 구성원들에게 지역대학은 앞으로 희망이 없다는 무기력함이 아닌 우리가 힘을 합치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용기를 주고 싶다. 그의 메시지는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함께 나아갈 길을 밝히는 비전이다. 변화의 파도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잡는 것, 그게 진짜 리더의 역할이라 믿는다. 박민원 총장은 구성원 모두가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더 노력할 것이다.



#시험기간 우리 학생들 당보충은
#총장이 책임진다~!



“국립창원대학교 88학번인 저에게 국립창원대는 과거이자 현재이고, 또 미래입니다.

지금 잘한다고 칭찬받기보다 훗날 박민원이 그래도 열심히 최선을 다했다는 그 말 한마디는 꼭 듣고 싶습니다.

”

봄밤

나태주

꽃들이 피는 밤이에요.
새가 우는 밤이에요.

꽃들만 뜰에 두고
혼자서 방에 들어와
잠들기 아쉬워요.

새들만 나무 위에 두고
혼자서 방에 들어와
잠들기 미안해요.

바람에서도
향내가 묻어나고
사람의 마음에서도
향내가 날 것 같아요.



국립창원대 청운지의 봄 풍경 항공사진

26년 기다린 용동공원, 이제는 시작할 시간!

도시 속 숨은 쉼터, 다시 숨 쉬다.
이제, 모두의 공원으로 피어납니다.

write. 김보배

톡톡톡 정리

- ✓ 용동공원 조성사업은 1999년 시작됐지만 행정 갈등으로 26년간 지연.
- ✓ 최근 창원시가 국립창원대·주민과 협업해 '공원관리 협의체'를 통해 환경 정비 착수.
- ✓ 현재 일부 구역에 유채 식재 완료, 임시 휴식 공간으로 변모 중.

🔔 오늘의 톡방 주제

용동공원, 우리가 꿈꾸는 공간이 될 수 있을까?

국립창원대 학생

솔직히 저는 펜스 너머가 뭔지도 잘 몰랐어요.
1학년 때부터 그냥 '들어가면 안 되는
공터'인 줄 알았죠.

창원시청

그래서 시가 '공원관리 협의체'를 구성하고 환경
정비부터 시작했어요. 국립창원대와의 협력 중이고요.

국립창원대 근처 상인

맞아요. 20년 넘게 말뿐이라 답답해 죽는 줄
알았어요. 울타리 치고 주차도 막아버리니
장사도 어려워지고... 우리도 이제 좀 살겠네요.

국립창원대 총장

저도 주민들과 계속 만나서 협의 중이에요.
모두에게 좋은 방향이어야 하니까요. 그 자리가
예전에 야외 세미나와 발표 수업도 하던 곳인데,
완공될 것을 생각하니 벌써부터 설렙니다.

국립창원대 교수

행정소송이 길어지면서 너무 오래 돌아왔어요.
우리 대학 부지도 일부 포함돼 있어서 아깝지만
땅을 그냥 방치할 수밖에 없었죠.

지역주민

땅 일부에는 마을 사람들이 수십 년째 경작을
했잖아요. 근데 아무도 뭘 어떻게 하자는 얘기를
안 하니 엄청 불안했죠. 지금은 유채도 심고 잡초
도 제거하니깐 훨씬 보기 좋더라고요.

지역 언론 기자

언론에서도 이 문제, 여러 차례 보도해 왔어요.
몇십 년째 답답한 상황이었는데 이제는 정비도
시작됐고, 정말 '변화'가 보입니다.

지역 청년 예술가

저도요. 예전에 용동못이 진짜 예뻐하던데..
정말 기대돼요. 나중에 공원에서 야외 전시나
버스킹 같은 것도 하고 싶은데, 그 날이 하루
빨리 왔음 좋겠어요.

👤 톡톡톡 마무리 한마디

26년간 멈춰 있던 시간... 우리 손으로, 함께 다시 걷게 만들어요!

국립창원대와 함께 걸어온 <푸주옥> 이석희·강혜정 부부의 이야기

35년 인연,
설령탕 한 그릇에 담긴
따뜻한 나눔의 마음

창원시 성산구 용호동에 위치한 설령탕·도가니탕 전문점 <푸주옥>.

26년째 한자리를 지키며 지역민의 사랑을 받아온

이 식당에는 단순한 음식 이상의 이야기가 숨어 있다.

바로 국립창원대학교와의 35년 인연

그리고 진심을 담은 기부와 나눔의 철학이다.

<푸주옥>을 운영하고 있는 이석희·강혜정 부부를 만나

그들의 특별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write. 김보배 photo. 백동민

국립창원대와의 인연, '장우동'에서 시작된 따뜻한 관계

이들과 국립창원대의 인연은 199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강혜정 대표는 국립창원대 앞에서 '장우동'이라는 분식집을 운영하며 자연스럽게 학생들과 가까워졌다.

강혜정 대표 그때 주 고객이 국립창원대 학생들이었어요. 대부분 시골에서 올라온 유학생들인데, 다들 형편도 어렵고 부모님과 떨어져 사니까 생일도 챙기기 어려운 상황이 많았죠. 그래서 제가 대신 미역국도 끓여 주고 케이크에 샴페인까지 챙겼어요.

그렇게 맺은 인연은 지금까지 이어진다. '장우동'을 그만두고 <푸주옥>을 운영하게 된 후에도 그때의 학생들이 명절이면 선물을 들고 찾아온다. 어느덧 회사의 임원급 중년이 된 학생들도 점심시간이나 회식 장소로 가게를 찾으며 여전히 옛정을 이어오고 있다.

"돈을 벌면 꼭 매출의 1%는 기부하자" 다짐에서 시작된 나눔

부부에게는 늘 마음속에 간직해 온 약속이 있었다. "돈을 벌게 되면 1%는 기부하자." 그렇게 시작된 기부는 단순한 물질의 나눔이 아니라 인연의 연장이었다. 실제로 <푸주옥>을 시작할 당시, 매출의 1%를 좋은 일에 쓰자는 원칙을 세우고 팻말을 걸어둘 만큼 진심이었다. 현재도 국립창원대뿐만 아니라 창원시 내의 여러 초등학교와 대학, 문화 예술 단체에 꾸준한 기부를 이어오고 있다. 지역의 교육, 예술계에 끊임없이 나눔을 실천하는 이유, 특히 국립창원대에 대한 부부의 애정과 기대는 단순한 기부의 마음을 넘어서나.



이석희 대표 국립창원대는 우리 지역에 하나 있는 국립대잖아요? 지역이 살려면 젊은 청년들이 있어야 하고, 청년들을 위해서는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이 있어야죠. 국립창원대에서 훌륭한 인재가 잘 배우고, 그 학생들이 수도권 으로 가지 않고 지역 기업에 들어가면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한마디로 지역의 미래를 위한 투자랄까. 부부는 우수한 인재들이 지역에 남 아 창원의 경제와 문화를 지키는 데 힘써주기를, 국립창원대가 그 중심 역할 을 해주길 바라고 있다. 그렇게 26년 동안 이어진 부부의 만기 없는 적금, 아 니 어찌면 가장 확실한 투자는 창원의 내일에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는 것이다.

“정직이 비법입니다” 하루 19시간, 설렁탕에 담긴 진심

35년 장사 인생. 부부가 지켜온 식당 운영에는 분명한 철학이 있다.

이석희 대표 정직이 비법이에요. 국물이 정직하지 않으면 무너지는 법이죠. 우리는 보약을 낸다는 마음으로 설렁탕과 도가니탕을 끓여요.

실제로 <푸주옥>은 매달 도시가스비만 수백만 원이 나올 만큼 국물을 우리 는 데 정성을 들인다. 새벽 4시 반부터 밤 12시까지 끓여낸 국물, 손님들에게 공개된 조리 공간, 좋은 재료로 직접 만드는 반찬 하나하나에 그 철학이 녹아 있다. 서비스 식혜 하나에도 정성이 가득하다.

강혜정 대표 서비스지만 당귀, 오가피 같은 몸에 좋은 약재를 넣고 식혜를

만들어요. 반찬 재료는 다 국산이고, 전부 수제로 만들어서 내놓죠.

조만간 직접 만든 두부를 손님상에 올리기 위해 타 지역에서 두부 기계까지 들여올 계획이라는 부부는 “손님들이 오셔서 맛있게 드실 생각을 하면 정말 설렌다”고 입을 모은다. 장사를 시작하고 35년 동안 단 한 번도 여행을 가본 적이 없지만 여행보다 음식 박람회에서 새로운 요리를 보고 배워 오는 게 더 즐겁다는 부부는 서로를 꼭 닮은 지독한 워커홀릭이었다.

“국립창원대는 지역 발전의 중심입니다” 앞으로도 이어질 든든한 동행

이석희 대표는 국립창원대 발전위원회 위원으로서 앞으로의 목표도 확실했 다. 당장 내년에는 국립창원대 1억 원 기부자로서 이름을 올리는 것.

강혜정 대표 박민원 총장님이 정말 부지런하세요. 진짜 이른 새벽부터 저희 가게에 오셔서 밥 드시고 출근하시기도 하거든요. 그런 모습 보면 우리가 더 힘을 보태고 싶죠.

국립창원대 행사에도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다. 요즘 학교가 한창 새 단장 중이라 분주하지만 학생들을 위해 먼저 살피고, 행동하는 발전위원 회가 되겠다는 다짐이다.

이석희 대표 저는 국립창원대가 지역 발전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요. 앞으로도 더 가까이에서 국립창원대를 응원하고 싶습니다.

한 그릇의 설렁탕에는 정직한 땀방울이, 나눔의 손길에는 35년의 인연이 담겨 있다.

국립창원대학교와 함께 걸어온 <푸주옥> 이석희·강혜정 부부.

이들이 쌓아온 온기 가득한 이야기는 지역 사회를 더욱 따뜻하게 만들고 있다. 이들은 말한다.

"보람된 순간이요?
손님이 '정말 맛있다고 엄지 척하고 칭찬해 줄 때,
그리고 내가 뿌린 나눔이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때,
전화는 그거면 충분해요."





'경계가 아닌 연결의 문' 국립창원대학교, 새롭게 열린 정문의 의미

국립창원대학교 정문이 달라졌다. 이번 정문 환경 개선 사업은 국립창원대가 단순한 학문의 전당을 넘어
지역사회의 생활과 문화 중심으로 나아가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지역사회와 캠퍼스를 이어주는 '열린 대학'으로의 선언이자 상징인 것이다.



1. 국립창원대 정문 공사 전
2. 국립창원대 정문 공사 후

이제 국립창원대의 정문은 더 이상 경계가 아니다.
소통의 시작점, 지역의 자부심 그리고 미래를 향한 열린 문이다.
우리는 이 문을 통해, 새로운 대학의 가능성을 마주하고 있다.

차량에서 사람으로...

'보행자 중심 캠퍼스'의 출발점

기존 정문은 해마다 230만 대가 넘는 차량이 통과하며 '국도 나들목'의 역할을 해왔다. 이로 인해 학생과 교직원의 보행 안전은 끊임없이 위협받아 왔다. 이에 국립창원대는 대대적인 교통체계 개편을 단행해 차량은 동문과 복문으로 우회하도록 하고 정문은 보행자 전용길로 탈바꿈시켰다. '사람 중심의 정문'이란 말이 이제 현실이 된 것이다.

지역과 함께 숨 쉬는 공간, 정문 광장과 친수 공간

정문의 변화는 단순한 동선 변경에 그치지 않는다. 새롭게 조성된 정문 광장과 만남의 숲, 친수 공간은 누구에게나 열린 쉼터다. 정문에서 대학본부까지 이어지는 약 5,000㎡의 유휴 공간은 자연을 느끼며 산책하고 소통할 수 있는 복합 커뮤니티 공간으로 다시 태어난다. 고저 차를 활용한 물길, 잔디광장, 계단식 수로(캐스케이드) 등은 단순한 조경을 넘어 감성과 창의력이 흐르는 열린 공간으로 설계되고 있으며, 지역민들도 자주 찾는 도심 속 힐링 스폿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야경도 명소가 되다...

빛나는 경관조명

밤이 되면 정문은 또 다른 얼굴을 드러낸다. 정문과 대학본부에 설치된 LED 야간 경관조명은 국립창원대의 정체성을 시각적으로 부각하며,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아름다운 야경을 만들어낸다. 이는 단순한 장식이 아닌, 학생과 시민이 함께 누리는 저녁의 문화공간으로서 캠퍼스의 새로운 역할을 보여준다.

랜드마크에서 생활 중심지로, '아레나플렉스 창원'과의 연계

정문 인근에는 또 하나의 대형 프로젝트인 '아레나플렉스 창원'이 추진되고 있다. 수영장, 실내 테니스장, 전시 공간, 옥상 카페까지 갖춘 복합 문화시설로, 정문 광장과 연계해 국립창원대는 교육·문화·체육이 융합된 지역의 중심 공간으로 도약할 예정이다.



전통이 숨 쉬는 미래의 캠퍼스 '탁청대공원' 개장

국립창원대학교 캠퍼스 한가운데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잇는 새로운 문화·교육의 공간이 열렸다.

향교의 정신이 깃든 공원

탁청대는 고려 말 국립 지방 교육기관인 창원향교 앞에 세워졌던 비석이다. 수백 년간 지역 교육의 상징이었던 이 비석은 마산교육대학을 거쳐, 1980년대 국립창원대 본부와 동백관 사이의 현 위치로 옮겨졌다. 탁청대공원은 이 비석이 놓인 공간을 중심으로 전통과 자연, 학문과 미래가 어우러지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재탄생했다. 약 6,200㎡ 부지에 조성된 공원은 '탁청의 벽', '탁청정', 야외 강의 및 스터디 공간, 전망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탁청의 벽'은 창원의 성곽도시 이미지를 반영하고, 경남도립거창대학·경남도립남해대학과의 글로벌 대학 통합 의미를 시각적으로 표현해 국립창원대의 미래 지향적 가치를 드러냈다.

자연 속의 배움과 쉼, 모두의 공간

탁청대공원은 단지 유산을 보존하는 공간에 머물지 않는다. 야외 강의와 스터디 공간은 학생들이 자연 속에서 자유롭게 토론하고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탁청정은 전통 건축의 멋과 현대적 감성을 조화시킨 소통의 공간으로서 학생과 시민 모두에게 열려 있다. 또 전망대는 캠퍼스뿐 아니라 지역사회까지 한눈에 들어오는 시원한 경치 맛집으로 방문객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지역사회와 함께 지켜가는 문화유산

탁청대공원은 창원향교와의 협약을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 문화유산을 보존·계승하는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박민원 총장은 "탁청대공원은 과거와 현재가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장을 여는 상징적 공간"이라며, "문화유산을 단순히 보존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교육에 적극 활용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창원향교 김판수 전교 또한 "과거의 지혜를 미래 세대에게 전하는 의미 있는 공간"이라며 대학과 창원향교가 협력해 교육적 가치를 함께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탁청대공원은 국립창원대학교가 '열린 대학',
'함께하는 캠퍼스'로 도약하는 발걸음이자 선언이다.

밝고 깨끗한 학문의 정신, '탁청'의 의미는
국립창원대 학생들뿐 아니라 지역민들의 삶에도 스며들고 있다.

1. 탁청대공원 개장 전 2. 탁청대공원 개장 후





1



2



4



5



3



6



7

추억속의 그때 그-시절

- 국립창원대 봄 시즌 -

1 1974년 캠퍼스 낙성식(완공식)

2 1991년 창원대학교 현판식

3 제14회 경남지역대학도서관협의회 세미나 및 체육대회

4 창원대학교 축제 주점

5 2000년 CUB봉림가요제

6 2000년 제5회 총장배 교직원 바둑대회

7 빛꽃 핀 경영대학교



1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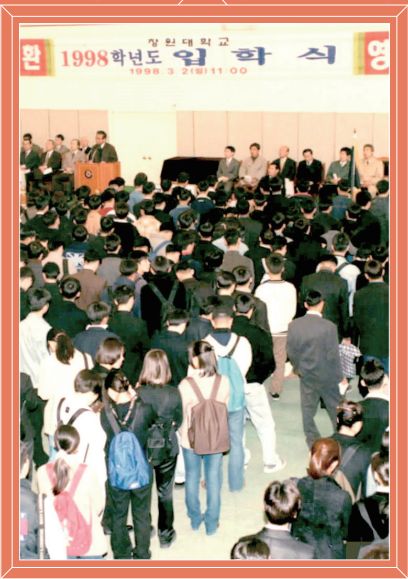
3



4



5



6



7

창원대학교 축제 무사기원 제사

1969년 마산교육대학 개교식 및 입학식

창원대학교 학생대상 한국의 지리역사강의

1990년 제10회 국립창원대학교 음악과 신입생 음악회

1991년 제22주년 개교기념식 및 종합대학 승격 축하행사

1998년도 입학식

1999년 개교 30주년 기념 음악회

그린벨트 해제를 반기며



조영태 국립창원대학교 교학부총장

2월 25일 정부는 국가·지역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전국 15개 지역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하기로 하였다.

창원권에만 4곳이 선정됐는데 진해신항 항만배후단지, 마산 도심생활 복합단지, 김해 진영일반산단 그리고 국립창원대학교 인근 도심융합기술단지가 포함됐다. 이 중 도심융합기술단지는 국립창원대학교의 부지가 포함돼 있으며, 그동안 그린벨트에 묶여 이 부지를 활용하고자 하는 미래 계획이 번번이 무산돼 왔던 지역이다.

이번에 R&D 산학연구단지 형태로 개발이 허용되면서 드디어 국립창원대학교는 오랜 기간 숙원 사업이던 연구개발 클러스터를 구축할 수 있게 됐다. 비록 개발에 따른 환경 문제가 대두되겠지만, 이는 그린벨트를 새롭게 지정하는 형태로 보완이 가능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를 생각한다면 그 이익이 훨씬 크다고 볼 수 있다.

이번에 해제되는 지역은 기존 국립창원대학교 부지 면적의 3배 가까운 넓이로 첨단방산 R&D센터가 들어가고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재료연구원 등 연구기관과의 새로운 연합 모델을 실현할 공간으로 재탄생할 수 있다. 수요자 중심의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기술의 빠른 상용화를

실현할 수 있는 공간으로 R&D를 기반으로 한 고급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게 되며, 무엇보다도 글로벌 대학으로 선정된 국립창원대학교가 첨단방위산업 연구센터를 구축함으로써 지역 산업과 연계된 핵심 연구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

특히, 글로벌 사업의 주요 내용 중 하나로 The Unmanned Ground(TUG) 캠퍼스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는 무인 방위산업 기술을 종합적으로 테스트할 수 있는 곳을 의미한다. 첨단 아웃도어 캠퍼스인 TUG 캠퍼스에는 무인 자율주행 테스트 환경을 구축하고 Defense, Nuclear, Autonomous라는 글로벌 사업의 테마에 맞춘 오픈 연구 공간으로 탄생하게 된다. 무인 자율 군용차량, 무인 휴머노이드 로봇, 무인 드론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게 되며, 기업의 자유로운 활용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자율 기동 경진대회도 이곳에서 진행할 수 있게 된다.

대학 인근의 그린벨트 해제는 그동안 국립창원대학교의 오랜 숙원 사업이었다. 대학의 땅으로 구분돼 있지만 그린벨트에 포함돼 있어 교육·연구를 위한 어떠한 개발도 할 수가 없었는데, 기존 캠퍼스 부지 이상으로 개발제한이 해제되면서 대학이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됐다.

KTX 창원대역이 그린벨트 해제 지역의 중심에 있으니 역세권 개발도 기대된다. 대학은 사람으로 북적이는 곳이어야 한다. 젊은 사람들이 넘쳐나는 공간이어야 성공하는 대학이 된다.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고 실제 개발이 이루어져 새로운 공간으로 재탄생하기까지는 수년의 시간이 더 걸리겠지만, 개발에 따른 생산유발효과가 1조 원 이상이라고 하니 도시 전체가 새로운 활력을 받을 수 있는 찬스가 생긴 것이다. 의과대학·법학전문대학원 신설과 같은 대학의 다른 숙원 사업들도 앞으로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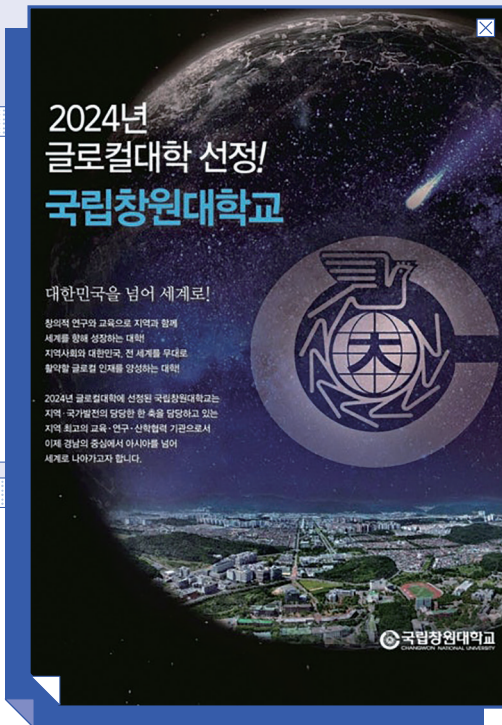
국립창원대학교는 최근 사천우주항공캠퍼스가 교육부로부터 인가를 받았고 신입생이 모집돼 우주항공공학 부라는 신설 학과가 운영되고 있다. 우주항공 시대에 발맞추어 새로운 캠퍼스를 시작하게 됐고, 이번에 그린벨트 해제까지 이루어지니 글로벌 대학으로서 높은 위상을 충분히 갖추어 나가고 있다. 새로운 기회를 잘 살려서 지역 발전의 핵심 주체로서 대학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

키워드로 보는
CWNNU HOT ISSUE



6,917억

국립창원대학교 2024년 글로컬 대학에 최종 선정되면서
5년간 6,917억 원 규모 재정 지원을 신청하였다.



227만m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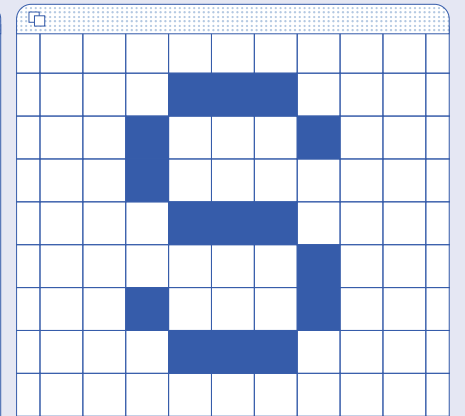
국립창원대 그린벨트(GB) 해제로 ‘국가·지역전략사업-창원도심융합기술단지’ **227만㎡** 선정.
연간 생산액 1조 2,000억 원, 일자리 2,464명 창출,
TUG 캠퍼스 실현 등이 기대된다.

250억

‘지-램프(G-LAMP) 사업’ 선정으로 국립창원대는 5년간 총 **250억** 원 지원받음. 지역 산업 연계를 통한 지역 생태계 기반 지속 가능한 열린 공동연구 플랫폼 조성 등 새로운 혁신적 패러다임의 연구기관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됨.

S등급

국립창원대학교는 교육부의 '2024년 국립대학육성사업 성과평가' 결과 도내 대학 유일 **S등급** 및 전국 국립대학 상위 20% 이내의 성적을 달성. 포물러 사업비에서 추가 인센티브 69억 원을 포함하여 총 131억 5,100만 원 확보.



아레나 플렉스

400억 원 규모 경남 최대
문화·예술·스포츠 콤플렉스
신축사업 예비 선정.
경남 최대 융복합 문화타운
아레나플렉스 랜드마크 탄생 기대

99.49%

2025학년도 신입생 모집 등록을 마감한 결과, 최종 충원을 **99.49%**로
전년(98.68%) 대비 0.81포인트 상승. 최근 5년간 최고 성적 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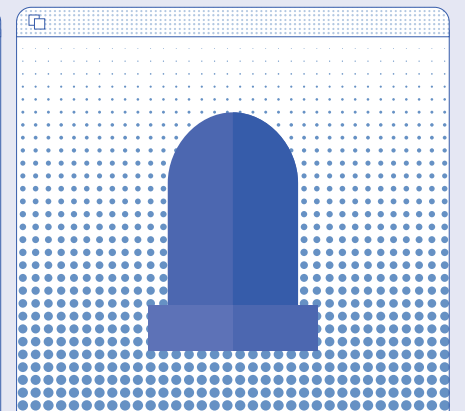
loading... 99.49%

15명

사천시 우주항공산업 기반과 연계해
우주항공 분야 고급 인재를 키울 사천우주항공캠퍼스 개교.
2025학년도 수시모집으로 신입생 **15명**을 선발하였다.

탁청대

탁창대는 ‘맑고 깨끗한 마음으로 학문에 정진하라’는 의미를 담은 비석으로, 고려 말 창건된 국립 지방 교육기관인 창원학교 앞에 세워졌다. 이후 창원학교가 소담동(현 창원시 의창구)으로 이전한 후 국립창원대로 가져온 문화유산이다.



2025 상반기, 국립창원대에 무슨 일이?!

지금 꼭 알아야 할 국립창원대 소식을 정리했어요.

NEWS



국립창원대,

‘2024 글로벌 대학’ 최종 선정!

국립창원대학교가 교육부와 글로벌대학위원회가 주관한 ‘2024년 글로벌 대학’에 최종 선정됐다. 이에 따라 향후 5년간 총 6,917억 원 규모의 재정지원을 받게 된다. 국립창원대는 경남도립거창대·경남도립남해대와 통합하고, 한국승강기대와 연합해 고등교육 대통합 벨트를 구축한다. 또한 한국전기연구원·재료연구원 등과 협력해 대학 내외부의 경계를 허무는 혁신계획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실행계획서에는 DNA+ 방산·원전·스마트제조 산업 특성화와 3무경계 고등교육이 포함돼 좋은 평가를 받았다. 경남창원특성화과학원(GCIST) 설립과 UGRIC 모델을 통해 DNA+ 인재 1,000명을 양성할 계획이다. 글로벌 고등교육 벨트를 구축하고, 글로벌교육인재원 설치 및 융합물 입 교육도 함께 추진된다. 박민원 총장은 지역산업기반형 연구중심대학으로 도약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QS 아시아랭킹 20위권 진입 등 세계적 특성화 대학으로 성장하겠다는 비전도 제시했다. 이번 선정은 지자체·출연·지역대학이 함께한 지산학연 협력 체계의 성과로 평가된다.



국립창원대,

교육부 G-LAMP 사업 선정... 250억 규모 국비 확보

국립창원대학교가 교육부의 ‘지-램프(G-LAMP)’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국립창원대는 이번 선정으로 향후 5년간 총 250억 원을 지원받아 연구소 체계 구축과 공동연구를 본격 추진하게 된다. 테마 중심의 중점연구소 운영과 신진연구인력 중심의 공동연구 체계가 주요 지원 내용이다. 창원대는 D.N.A.+ (방산·원전·우주항공·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한 지역 맞춤형 기초과학 연구 허브 구축을 제시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첨단나노과학기술연구소를 새롭게 설립하고, 나노소재 분야의 3대 중점 연구팀을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각 팀은 극한 환경용, 생화학 응용, 표면기반 원천기술 등 세부 분야를 중심으로 연구를 수행한다. 해외 유수의 연구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세계적 수준의 공동연구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기존 과제 중심 연구에서 벗어나 지속 가능한 연구 생태계로의 전환을 모색한다. 기초과학 성과를 지역 산업과 연계해 창의적이고 실질적인 사회 기여를 실현할 방침이다. 국립창원대는 지-램프 사업을 계기로 새로운 연구 중심 대학 모델 구축에 한걸음 더 나아가게 됐다.



국립창원대,

GB 해제 확정... 캠퍼스 확장·자산가치 상승 기대

국립창원대학교가 국토교통부 주관 ‘개발제한구역 국가·지역 전략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이에 따라 국립창원대 부지 내 개발제한구역(GB)이 해제되고, ‘창원 도심융합기술(R&D)단지’가 조성된다. 이번 사업은 국립창원대를 중심으로 한 도시융합 R&D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대형 국가사업이다. 단지는 총 227만㎡ 규모로, 이 중 50만㎡는 R&D센터 등 산업시설로 활용될 계획이다. 조성단계에서 0.8조 원의 직접 투자, 1.3조 원의 생산 유발, 1만4,802명의 고용 효과가 기대된다. 조성 이후에는 연간 1.2조 원 규모의 생산과 2,464개의 일자리 창출이 예상된다. 이 사업은 국립창원대가 선정된 글로벌 대학 30 사업과 연계되어 TUG캠퍼스 조성을 앞당기는 계기가 된다. TUG 캠퍼스는 40만㎡ 규모로, 무인드론 테스트 필드와 야외 사격장 등 실습 시설이 포함된다. D.N.A+ 전략(방산·원전·스마트제조)에 기반한 실습과 연구가 가능한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국립창원대는 이번 사업을 통해 R&D 거점대학으로 도약하고, 자립성장형 대학 모델 구축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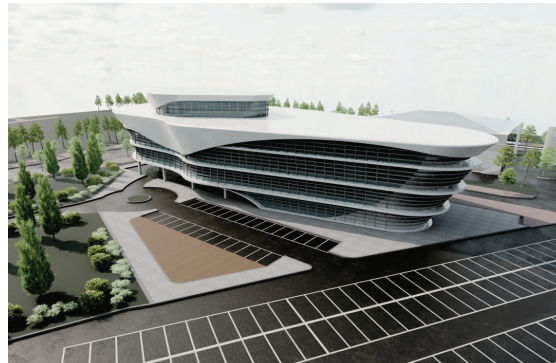
‘사람 중심’ 정문 새 단장...

보행자 중심 열린 캠퍼스 완성

국립창원대학교가 정문 환경개선사업을 마무리하고, 사람 중심의 열린 정문으로 새롭게 단장했다. 기존 차량 통과 중심의 정문은 학습환경 저해와 안전사고 우려로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대학은 방학 중 교통체계를 전면 변경하고, 정문을 보행자 중심의 전용길과 공원형 광장으로 조성했다. 차량은 동문 및 외부도로로 우회시키고, 정문은 학생과 시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으로 탈바꿈했다. 국립창원대는 이 사업을 통해 지역사회와 캠퍼스의 경계를 허무는 물리적·상징적 전환을 이뤄냈다. 국비 25억 원이 투입된 이번 개선사업은 대학의 공간 혁신과 공공성 확장의 대표 사례로 평가된다. 정문 보행자 전용길 개통 후 단순통과 차량은 약 65% 줄며 가시적인 효과도 확인됐다. 개선 완료를 기념한 개통행사에는 학생, 교직원, 지역 주민 등이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 박민원 총장은 “정문은 대학의 위상이자,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관문이 될 것”이라 밝혔다. 사람 중심으로 새롭게 단장된 정문은 국립창원대의 개방성과 공공성을 보여주는 상징으로 자리잡을 것이다.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로!

NEWS



문화·체육 복합공간 'ARENAPLEX 창원'

예비 선정 및 400억 확보

국립창원대학교가 경남 최대 규모의 스포츠·문화 콤플렉스 '아레나플렉스 창원' 건립사업으로 국비 400억 원을 확보했다. 총 사업비는 398억 원 규모로, 국비 358억 원과 지자체 대응자금 40억 원이 투입된다. 신축이 확정되면 2025년 설계를 시작으로 사업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사업 부지는 국립창원대 정문 옆 주차장 일원으로, 연면적 8,800㎡, 지상 5층 규모로 조성된다. 실내 수영장, 문화전시실, 실내 테니스장, 체력단련실, 디자인스퀘어, 옥상 카페 등 다양한 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이번 복합시설은 교육·기술·문화·예술·체육이 어우러지는 융복합 문화타운으로 조성된다. 지역사회와 연계한 공공성 강화와 지속 가능한 동반성장을 위한 핵심 거점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특히 지역 인문·사회·예술·체육인을 위한 개방형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국립창원대는 경상남도, 창원특례시 등과 건립 TF를 구성하고 국회 심의 등을 거쳐 12월 본사업비 확정을 앞두고 있다. 최종 준공 시 국립창원대는 지역과 함께 호흡하는 복합문화 랜드마크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될 전망이다.



사천우주항공캠퍼스 개교...

항공우주 특화 인재 양성 본격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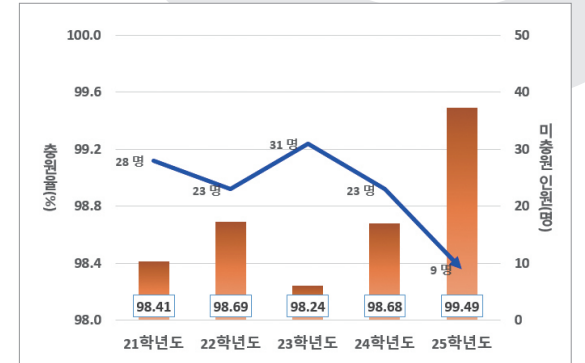
국립창원대학교가 교육부로부터 산업단지 캠퍼스 설립 인가를 받아 '사천우주항공캠퍼스'를 정식 개교했다. 캠퍼스는 사천시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에 조성되었으며, 우주항공산업 기반과 연계해 고급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한다. 2025학년도 수시모집을 통해 우주항공공학부 신입생 15명을 선발했고, 점차 정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개교를 기념해 3월 7일 현판 제막식과 우주항공공학부 입학식이 열렸다. 행사에는 국회의원, 우주항공청장, 사천시장, 지역 대학 총장 등 다양한 인사가 참석해 축하를 전했다. 박동식 사천시장은 신입생에게 기념 배지를 전달했고, 국립창원대는 설립에 기여한 관계자들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우주항공공학부 학생들은 1~2학년 동안 창원캠퍼스에서 기초 교양을 이수하고, 사천에서 전공 실습을 받으며, 3학년부터는 사천캠퍼스 기숙사에서 생활하며 심화 교육을 이어가게 된다. 수업은 전공교과와 함께 현장실습, 산업체 연계 비교과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된다. 국립창원대는 이번 캠퍼스 개교를 계기로 우주항공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에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탁청대공원 개장...

전통과 미래 어우러진 열린 공간 탄생

국립창원대학교는 대학본부와 박물관 사이에 조성된 '탁청대공원'을 개장했다고 27일 밝혔다. 탁청대공원은 고려 말 창원향교 앞에 세워졌던 비석 '탁청대'를 중심으로 조성된 복합 문화·교육 공간이다. '탁청'은 '밝고 깨끗한 마음'으로 학문에 정진하라는 뜻으로, 지역 교육의 전통적 가치를 담고 있다. 공원은 약 6,200㎡ 규모로, 탁청의 벽·탁청정·야외 강의 공간·전망대 등을 갖추고 있다. 탁청의 벽은 성곽도시 창원을 모티브로 거창석 성벽을 활용해 글로벌 대학 통합의 의미도 반영했다. 전통 건축 양식의 탁청정은 학생과 방문객에게 휴식과 소통의 공간을 제공한다. 자연 속 야외 강의 공간은 전통문화와 현대 교육의 융합을 지향하는 국립창원대의 철학을 담고 있다. 개장식과 함께 창원향교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문화유산 보존·활용 협력을 약속했다. 김판수 전교는 공원이 미래세대에 전통을 전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 전했다. 박민원 총장은 문화유산을 교육 현장에 적극 활용해 학생 체험과 학습으로 연결하겠다고 밝혔다.



입시 최고 성과 달성...

정시·수시 경쟁률 모두 상승세

국립창원대학교가 2025학년도 신입생 모집에서 정시·수시 모두 경쟁률 상승과 높은 총원율을 기록하며 최고 성과를 달성했다. 정원 내 1,750명 모집에 1,741명이 등록해 총원율 99.49%를 기록, 최근 5년간 최고 성적을 달성했다. 정시 모집에서는 429명 선발에 1,988명이 지원해 전년 대비 상승한 4.6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번 성과는 글로벌 대학, G-LAMP, 국립대학육성사업 등 연이은 국책사업 선정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입학정보 확산을 위한 찾아가는 설명회, 입학박람회, 교사 간담회 등의 노력도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총장 취임 이후 8,000억 원 규모의 재정 확보와 함께 대학의 위상이 높아진 점도 주목된다. 입학취업분부는 이번 성과가 학령인구 감소 시대의 위기를 극복한 대표 사례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국립창원대는 앞으로도 세계적 수준의 인재를 양성하는 대학으로 도약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세계로! 미래로!

‘국립창원대학교’

창의적 연구와 교육으로 지역과 함께
세계를 향해 성장하는 대학!
지역사회와 대한민국, 전 세계를 무대로
활약할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는 대학!
글로벌대학30사업에 선정된 국립창원대학교는
지역·국가발전의 당당한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지역 최고의 교육·연구·산학협력 기관으로서
이제 경남의 중심에서 아시아를 넘어 세계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는 대학

